

### 삽살개의 고향 팔공산 자락의 유서 깊은 교육도시 경산



경산은 고대 삼한시대에 압록국이 위치  
했었으며 김유신 장군의 신라군 사령부  
가 있던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곳이다.  
또한 원효, 설총, 의상이라는 한민족  
의 위대한 삼 성현이 태어난 곳이기도  
한 경산은 현재 12개의 대학과 10만  
명의 대학생이 거주하는 교육도시이기  
도 하다.

삽살개 육종 연구소는 팔공산 자락인 경산시 와촌면에 위치  
하고 있으며 일만 여평의 육종연구소에서 500여두 삽살개가  
보존되고 있다.

### 독도와 대구 세계육상대회 마스코트 삽살개



과거 삽살개의 이미지는 벽사진경의 영수, 귀신 쫓는 신선개  
였으나 이제 독도 지킴이 삽살개-2011 대구 세계 육상대회의  
순님맞이 마스코트 살비가 새로운 아이콘으로 등장하였다.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조직위원회는 2010년 대회  
개최 D-500일을 맞이하여 삽살개를 모티브로 컬러풀 대구  
의 이미지를 살리는 마스코  
트를 선정 발표하였다.

국가지정 문화재인 삽살  
개는 대구 경북의 살아 있  
는 문화 콘텐츠 자원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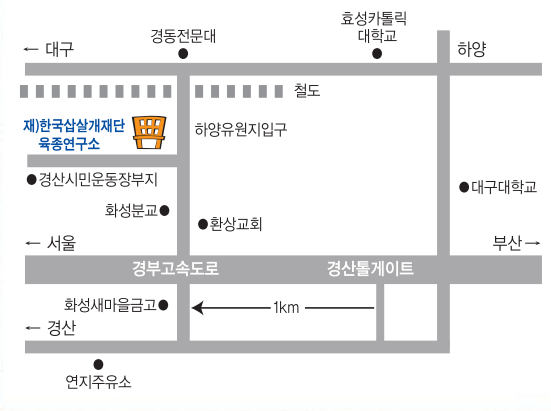


### ※삽살개를 입양하시려면...

삽살개는 우리나라의 귀중한 문화유산이며 엄격한  
혈통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 ◎ 비영리 목적으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 ◎ 중대형이고 장모종이어서 운동공간이 필요합니다.
- ◎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혈통관리를 지켜야 합니다.

### ※(재)한국삽살개재단 육종 연구소로 오시려면..



### ※(재)한국삽살개재단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3동 1370번지 경북대학교 생명공학관 203-2 ☎702-701  
전화 : 053-953-0370 팩스 : 053-953-0613 E-mail : sapsaree@sapsaree.org

### ※(재)한국삽살개재단 육종연구소

주소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조리 810 ☎712-904  
전화 : 053-856-0370 팩스 : 070-8677-0370

## 천연기념물 제368호 경산의 삽살개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3동 1370번지  
경북대학교 생명공학관 203-2호  
T 053-953-0370 F 053-953-0613  
E-mail sapsaree@sapsaree.org

### 역사속의 삼살개

삼살개는 고구려 고분벽화인 장천 1호 분의 예불도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신라 왕자인 지장보살 김교각 스님과 함께 중국으로 건너간 개이기도 하다. 고대 불교문화가 크게 번성했던 극동 아시아지역에서 털긴 개들이 사자개 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애호 받던 시절, 삼살개 역시 신라 귀족층의 애견이었으며 일본에서는 고마이누(고려개)라는 이름으로 왕궁의 수호동물이었다.



조선 오백년을 통해서 민담, 민요, 민화에 자주 등장했으며 민가로 흘러나와 민중의 개가 된것은 통일신라가 망한 후로 추정된다. 조선의 오래된 훈몽자회에 '개 일명 삼살개'라는 자귀가 등장하며, 털긴 개 또는 얼굴 덮을 개라는 말도 따라 나온다. 조선 중후기의 그림 중에 삼살개를 신령스런 개 또는 귀신 쫓는 영수로 여긴 민중정서들이 반영된 그림들이 있다.



경북 선산군 해평면의 일선교 곁에, 주인을 살리고 죽은 의로운 삼살개 무덤이 있으며, 선산군에서 구체적인 연도와 이름 등을 밝혀 의구층으로 공원화 해놓았다.

### 일제에 의한 토종개 멸종과 삼살개 복원과정



삼살개의 소멸은 일제에 의한 토종개 박멸 정책이 일차적 원인이었다.

7년에 걸쳐 백만두 이상의 토종개들이 무차별 도살당했으며, 해방 후 서양문물의 도입으로 토종개들이 거의 잡종화될 뻔 했으나 몇몇 학자들에 의해 삼살개가 살아나게 되었다. 경북대학교의 탁연빈, 하성진교수는 삼살개 30두를 찾아내어 과학기술처 연구비를 지원받아 그 혈통에 대한 연구를 했으며 마지막 남은 삼살개 명맥을 이어 오다가 15년후 하지홍교수에게 넘겨주게 되었다.



1985년부터 삼살개 복원작업을 시작한 하지홍교수는, 남아 있던 8마리 시조 삼살개로부터 고전 육종과 유전자 분석법을 활용해 삼살개 복원을 시작하였다. 삼살개 형태에 관한 기준 설정은 첫째, 1930년대에 실제 삼살개를 길러본 몇몇 동물학자들의 고증을 참고했으며 둘째, 탁연빈교수 등이 확보한 시조견 30두에서 추출한 형태 및 체질 특징, 셋째, 현존 500여두 원종집단의 평균적 외형특징과 옛 그림을 부가적인 자료로 참조하여 정하였다.

### 삼살개의 특징과 육종의 방향



삼살개는 중형견으로 장모종이며 우리 기후 풍토에 오랜 세월 적응된 탓에 강한 체질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성품적으로 진돗개와 같은 한국개 특성을 공유하기도 하나, 삼살개는 점잖고 주인에 대한 정 표시가 다양하며 정적인 면이 강한 개다. 음식이나 물건에 대한 욕심이 강하지 않아 훈련 능력이 뛰어난 개라고 할 수는 없으나 운동신경이 발달했으며 영리하여 반려견 또는 치료견으로서의 활용도는 크다. 긴 수염을 휘날리며 달리는 산중도사를 연상시키는 동양적인 품모가 삼살개의 특징적 외모이다.

삼살개 전체 집단의 숫자가 적음으로 형태에 따른 선발 육종보다는 원종 집단의 유전적 다양성을 중시 하였다. 색깔과 크기의 다양성이 타 견종에 비해 크나 집단 내 유전적 안정성과 소질은 잘 유지되고 있다. 현재 털영감이 심하지 않는 모질 차원의 선발과 일부 개에서 관찰되는 고관절 이상 제거를 위한 육종이 진행되고 있다.

